

방생, 환경살리기 처방된다

시민환경연구 문태영박사 자연보전 모색방법 제시 생명존중사상 보급·생태회복 이중효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전국에서 실시될 각종방생방법이 환경보호차원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그간 불교계에서 행해 온 방생법회는 상업성과 기복성을 부추기고 생태계 파괴문제까지 야기함으로써 비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90년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가 조급적 이뤄지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방생이 생태계 파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인간방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각 종단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방생」으로 방생의 형태를 유도하고 있다. 조계종은 최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올바른 방생법회를 위한 제언」을 전국 사암에 시달했으며 태고종도 지난해부터 「환경보존실천 수륙영산대법회」를 갖는 등 전에 없는 관심을 표명, 무분별한 방생이 눈에



○방생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복원 생태학적 측면에서 방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왼편은 문태영 박사).

문태영박사는 다음 달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환경·생태 관련 세미나」에 「방생의 종교 및 생태학적 응용」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문태영 박사는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올바른 방생에 대한 계몽사업을 펼치고, 한동안 이를 금지해 자제방생을 유도한 후, 방생의 본 뜻에

합치되며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지 않는 과학적인 방생방법을 연구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미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복원생태학적인 차원에서 방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문태영 박사는 또 「꼭 필요한 생물종을 방생한다면 본래의 생명존중사상과 함께 생태복원이란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생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전제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물기록센터나 생물자원보존관 등이 생겨 그 역할을 해주고 방생시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등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적극적 방생」의 해결책으로는 △기존 생태계를 보호하는 외래종(外來種)의 방생 △생태적 수용능력을 고려한 방생 △남획(濫獲)으로부터의 보호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방생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생 △오염된 지역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생 등이 제시됐다.

처음으로 「방생」을 환경생태학적으로 조명한 문태영 박사의 이 논문은 불교학계에서 방생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정무한 가운데 전문 생태 과학자에 의해



○정토진흥원 사파의 조진사는 사찰 전체가 지진으로 포사 주저앉았다.

지진 피해사찰 2백여곳 피해복구 원조모금활동 전개

지난 1월 17일 일본의 간사이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불교사찰의 피해도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일부 1월 21일자에 의하면 자체 지진피해조사반을 편성, 사찰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15개 종단에 걸쳐 2백여곳이 넘는 사찰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피해복구원조를 위한 모금활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피해 정도는 사찰건물에 금이 가거나 천정이 무너진 곳으로부터 완파된 곳, 지진에 따른 화재로 전소된 곳 등 차이가 있지만 정도가 심한 곳이 많다.

이중 법당, 산문, 중후, 요사채등의 피해가 가장 많고 남불판, 탑의 피해뿐 아니라 신축한 콘크리트 건물의 피해도 있었다.

종단별로 피해상황을 보면 △조계종, 통복사 외 19곳 △고야산전원종, 이성원을 비롯

한 15곳 △진언종영일사, 1월 21일 현재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동산사, 범종사 등 5곳의 피해 극심 △진언종순수사, 대본산순수사 △정토종, 광명사 등 17곳 △동산전원종, 서대사 및 실상사 △진언종대각사, 성복원 등 4곳 △본분 불일종, 광안사 등 7곳 △임제종모심사, 해정사 등 4곳 △임제종남산사, 광암사 등 4곳 △법계종통복사, 무송사 △법계종본문사, 대본산본문사를 필두로 범파사, 최명사 등 △정토종본원사, 원정사를 포함한 99곳 △진종종정사, 정복사 등 16곳 △진종대곡파, 명정사 등 19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전국적 차원의 피해복구 및 원조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종단별, 사찰별로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성관음종에서는 5백만원에 피해를 보냈고 조동종에서는 1천만원에 NHK에 기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타 종파별로도 필요한 인력,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미포인

방송 안테나

수권자본 천1백만주로 확대 불교TV 제6회 이사회 개최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 태운)은 지난 9일 신라호텔 과인룸에서 제6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불교텔레비전의 제1기 결산승인과 제2차 불자주식공모를 위한 정관변경, 일부조직개편, 외부감사인원, 주주총회소집 승인의 건 등이 결의됐다.

오는 3월1일 개국을 앞두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불교텔레비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작년 실적 1백55억 원의 결산승인하고 현재 4백77십만주(약2백40억 원)로 되어있는 수권자본을 1천1백만주(약5백55억 원)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조직개편에서는 영상사업부, 제작부2부를 신설하고 외부감사는 「안근세화 회계법인」을 선임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소집계획을 승인했는데, 3월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제6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이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결의되게 된다.

성철스님 영화 내달부터 촬영

성철스님의 일대기 영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한미영화사창립작품으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들어간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시장에도 배급할 계획인 성철스님 일대기 영화는 20여인의 제작비를 투입하여 불교영화의 대작으로 완성하게 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영화는 현재 종적자가 유지형씨의 시나리오가 탈고된 상태이며 대작인 만큼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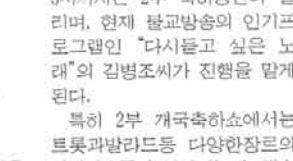
영화의 주연배우는 신인공모를 통해 이뤄지는데, 영화사측은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성철스님역에는 불심깊은 30~40대 신인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불교방송 26일 개국잔치

불교방송(사장 김태호)은 3월1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을 맞아 오는 26일 광주영주동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축하공연을

총화종 종정 이동광스님 추대

4월초 취임식 봉행



총화종은 지난 6일 「총정주대위원회」를 소집, 그동안 공식적으로 있던 종정에 부산 원각사 이동광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4월초 종정 취임식을 갖는다.

제12대 종정으로 추대된 이동광스님은 세수 70세로 55년 법에서서 월해스님을 은사로 득도, 70년에 총화종으로 이종, 총화의를 비롯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을 역임했다.

총화종 종정 이동광스님 추대

4월초 취임식 봉행



대한불교 총화종(총무원장 김법은) 제12대 종정에 이동광스님이 추대됐다.

창립 19주년기념 독경대회

천태종 성통사 청년회

성통사 청년회(회장 이재우)는 3월1일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및 제3회 전국청년불자 독경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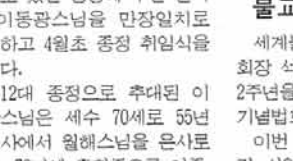
진각종 행원 심인당서 결혼상당소 개원준비

강남구 진각종 행원심인당 금강회(회장 지정행)는 전국의 진언행자 및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상당소를 개소한다.

금강회는 불자연맹기 운동 일환으로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서울 및 지방 심인당을 중심으로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3월 중순 개원

총화종 종정 이동광스님 추대

4월초 취임식 봉행



대한불교 총화종(총무원장 김법은) 제12대 종정에 이동광스님이 추대됐다.

창립 19주년기념 독경대회

천태종 성통사 청년회

성통사 청년회(회장 이재우)는 3월1일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및 제3회 전국청년불자 독경대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행원 심인당서 결혼상당소 개원준비

강남구 진각종 행원심인당 금강회(회장 지정행)는 전국의 진언행자 및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상당소를 개소한다.

금강회는 불자연맹기 운동 일환으로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서울 및 지방 심인당을 중심으로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3월 중순 개원

창립2주 기념법회 불교동수회, 대만서

세계불교동수회 한국지회(지회장 석일화)는 3월 24일 창립 2주년을 맞아 대만 만보사에서 기념법회를 갖는다.

이번 법회는 동수회회원 및 각 사암 주지스님 교회사 1백여명이 참석하며 대만 불교 성지순례도 마련된다.

서울 시민 위한 법회 종단협, 16일 세종홀

서울시민을 위한 기암법회가 오는 16일 오후 6시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관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기암법회에는 각 종단 총무원장 등 간부진과 서울내 사찰 주지스님들과 최병렬 서울 시장, 시청 간부들 및 각 구청장등 3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명스님 구소련지역 포교 보도

홍콩 시사주간지 「동방에서 발행되는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1995년 1월 12일자에 서울 안국동에 소재한 연동국제불교회관의 설립자인 원명스님의 국제포교활동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때 반종교선전의 그늘에 있었던 구소련지역을 20여 차례나 여행하면서 이곳 사람들의 정신적 갈망,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를 절감한 원명스님은 남다른 추진력으로 러시아의 톨라, 우르쿠이나의 톨스크,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등 4곳에 불교센터들을 설립했다고 한다.

가서광사 주지 서현스님 취임

한국불교 조계종 통도사 분원인 캐나다 서광사 주지 서현스님이 지난해 11월 27일 취임했다.

서현스님은 1974년 입산, 경기도 화성사에서 사미계, 1977년 송광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한 이래 참선수행에 정진해 왔으며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청년 및 학생법회, 참선법회 활성화와 전통사찰 건립 의지를 밝혔다. <미>

진리의 전학

부처님 품안에서 깨달은 진리의 진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진화가 있습니다.

구독사 부설 인생상담 (02) 579-3033

한국사

한길사의 한국사는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한국사의 참모습을 담아낸 당신 결의 역사 정보도서관

8년 동안 159명의 역사학자와 50명의 기획·편집진들이 3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만든 한길사의 「한국사」는 민족의 기원부터 1980년대 말까지 민족사의 힘찬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민족사관으로 기획·집필된 한길사의 「한국사」는 기왕의 식민사관 사서들이나 관찬 사서들의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한국사 편집위원: 김민길 고려대 교수·한국사, 김남식 동국대교수, 김명하 성균관대 교수·한국사, 김태영 경희대 교수·한국사, 박종기 국민대 교수·한국사, 박희선 조선대 교수·경제사, 안병직 서울대 교수·한국사, 정성호 영남대 교수·한국사, 정희철 한양대 교수·한국사, 조종호 고려대 교수·한국사, 최준식 조선대 교수·한국사, 최정진 고려대 교수·정치학

한국사 책 27권의 내용

제1권 선사시대에서 고대사회로-1
제2권 선사시대에서 고대사회로-2
제3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1
제4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2
제5권 중세사회의 성립-1
제6권 중세사회의 성립-2
제7권 중세사회의 발전-1
제8권 중세사회의 발전-2
제9권 중세사회의 쇠퇴-1
제10권 중세사회의 쇠퇴-2
제11권 근대민족의 형성-1
제12권 근대민족의 형성-2
제13권 식민시대의 사회경제-1
제14권 식민시대의 사회경제-2
제15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1
제16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2
제17권 분단구조의 정착-1
제18권 분단구조의 정착-2
제19권 제주·민주·통일을 향하여-1
제20권 제주·민주·통일을 향하여-2
제21권 북한의 정치와 사회-1
제22권 북한의 정치와 사회-2
제23권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1
제24권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2
제25권 연표-1
제26권 연표-2
제27권 찾아보기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성과 「한국사」가 불교에 앞장섰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림이책에서는 그간 「한국사」 구입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불자님들의 가슴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한국사」 판매·보급의 환경에 했습니다.

책 27권 · CD 24장 → 값 850,000원

▶스님, 불자님들의 구입문의는 (02) 720-5121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구입방법을 안내해 드리며 필요한 분께 「한국사」 관련 안내자료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가림기획대표 : 이주영 합정

CD 전 24매 포함

(주) 한길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